

한 해 마무리는 광주극장에서

전쟁부터 코믹 액션물까지, 광주극장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 8편을 선보인다.

먼저 16일부터 총 4개 영화가 상영된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 자바 순다 지역을 배경으로 전쟁 트라우마를 숨긴 채 살아가는 여성 나나의 내면을 과거와 현재, 미래, 꿈과 현실을 오가며 다룬 영화 '나나'가 개봉과 동시에 광주극장에서 상영된다. 감독 카밀라 안디니의 최신작으로 올해 베를린영화제 은곰상(조연상)을 수상했다. 영화 속 섬세한 카메라 워킹, 전반에 깔린 독특한 선율이 눈에 띈다.

'페르시아어 수업'은 독일 출신 각본가 볼프강 쿨하세의 실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단편을 원작으로 한다. 1942년 겨울, 살아남기 위해 페르시아인이라고 거짓말을 친 유대인 질이 독일군 장교 코흐에게 가짜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영화는 제 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으며 10분간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같은 날 상영하는 또 다른 영화 '지옥의 화원'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주인공 나오키가 싸움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오피스 코믹 액션물이다. 일본 개그맨 바카리즈무의 각본에 화려한 액션이 더해진 작품으로 2022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관객상에 해당하는 넷팩상을 수상했다.

영화 진흥위원회 지정 표현의 자유 주간(9일-18일)을 맞이해 전국 독립예술영화관 20곳은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작품을 선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극장도 오후 7시 20분 김정근 감독의 '언더그라운드'를 상영한다. 작품은 매일같이 도심을 달리는 지하철, 그리고 지하철을 운행하는 이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로 지하철 노동자들을 주인공으로 다루고 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감독과의 대화도 이어진다.

22일에는 영화 '코르사주'가 상영된다. 숨막히는 황실의 통제를 벗어던지고 문턱을 뛰어넘은 오

전쟁·코믹 액션 등 8편 상영
'나나'·'크레이지 컴페티션'
'언더그라운드'·'가가린' 등

스트리아 황후 엘리자베트의 초상을 그린 영화로 배우 비키크립스의 엘리자베트 역 소화력과 오스트리아-헝가리 황실 재현 등을 눈 여겨볼만 하다. 작품은 2023년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 영화상 부문 오스트리아 공식 출품작으로 선정됐다.

또 칸 영화제와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받은 영화 '가가린'은 우상이자 집인 가가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10대 소년 유리의 이야기다. 사라지는 공동체를 향한 향수를 담고 있다. 영화는 22일 개봉한다.

29일에는 역만장자가 80세 생일을 기념해 결박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은 '크레이지 컴페티션'을 올린다. 지상 최대 결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캐릭터의 연기 겨루기의 예측 불가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같은 날에는 아피차퐁 위라세타쿰 감독과 틸다 스윈튼이 등장해 2021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영화 '메모리아'를 선보인다. 영화는 자신에게만 들리는 '뿡' 소리에 불면의 밤을 보내는 주인공 제사가가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사운드 엔지니어를 찾아가고 공사 중인 터널에서 발견된 유골을 연구하는 고고학자와 친구가 돼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는 과정을 담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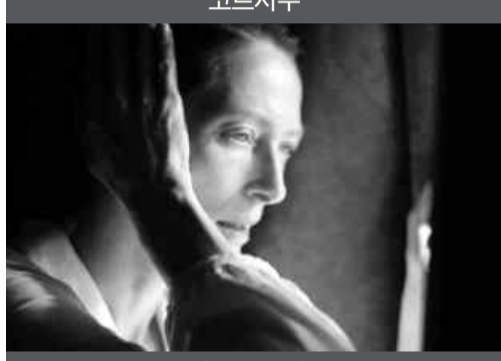
'페르시아어 수업'



'지옥의 화원'



'코르사주'



'메모리아'

'임을 위한 행진곡' 인문학적으로 확장돼야

광주문화재단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포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광주'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K-한류와 접촉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뮤지컬 등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문화재단은 12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5월의 노래이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음악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의 콘텐츠로 활용해 세계의 민주화와 인권의 현장에 공감하고 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악은 연대의 힘이 강하고 '혁명가'의 역할을 필요로 할 때는 타국으로 넘어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알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에서다.

포럼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의 음악적 가치와 사회·인문학적 확장성에 대한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윤관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5·18은 민주주의 발전의 큰 초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태생적·지역적 한계에 머물러있다"고 한계점을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를 초월하기 위해서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와의 접목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짧은 시기에 한국이 이룩한 민주화에 대한 경험과 가치는 민주화를 진행하고 있거나 열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다. 그는 또 ▲정권의 변화에 따라 '제창'과 '합창'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와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솔가(이윤신)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혁명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문화적 연결을 통해 대만, 홍콩, 캄보디아, 태국 등 각종 시위 현장에서 불리워졌으며 이는 곧 한국의 민주화가 아시아 사회·노동 운동가들에게 큰 관심사라는 증거이자 음악이 연대와 위안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언제나 '혁명가'를 필요로 하는 오늘날, 민주주의를 소망하는 우리 사회,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곳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혁명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음악의 힘은 이토록 애도의 힘과 연대의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작업 일환으로 제작된 뮤지컬 '광주'의 유희성 예술감독은 국고와 시비 지원이 1차적으로 끝난 시점에서 마무리할 게 아니라 지속적인 방안 찾기와 공연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중심이 돼 향후 몇 년 간 제반 사업을 제고해야 하며 '광주'가 문화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캐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여행'

한국음악예술교육협회, 17일 광산문화회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우리 귀에 익숙한 캐롤을 노래와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 공연이 마련됐다.

한국음악예술교육협회와 앙상블 한음·한음피아가 주최·주관하는 '크리스마스 여행'이 17일 오후 7시 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무대에는 한국음악예술교육협회 회원인 정진숙, 김성아, 박혜림, 이강은 등 16명의 피아니스트와 신유빈 바이올리니스트, 플루트에 김명하, 첼로에 조용상, 보컬에 문세빈이 함께한다.

먼저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으로 무대를 열고, 피아졸라의 '사계' 중 '겨울'을 무대에 올린다. 이어 '징글벨'과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에밀랴트토티엘의 '스케이트 왈츠'를 선보인다.

다음으로 '루돌프 사슴코', '크리스마스 플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잘 알려진 크리스마스 캐롤을 노래하고 히사시시조의 '전장의 크리스마스'를 선보인다. 또 '중소리', '울면안돼', '화이트 크리스마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등 캐롤 메들리도 펼친다.



김성아



조용상

기획·연출에는 문수이가 함께한다. 이날 공연은 사랑의 모금함을 통해 모아진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한다. 전석초대. 문의 010-7187-0908.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15일 '성평등 문화예술 환경조성 워크숍'

광주여성가족재단은 15일 오후 2시 북카페 은 새암에서 '성평등 문화예술 환경조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월 말 열린 광주 연극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음에 따라 성폭력 대응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열렸다.

워크숍은 김경계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더이상 떠나지 않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게'를 주제로 연다. 이어 이산 성평등 작업실 이로 대표, 장도국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박다현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장, 임인자 독립기획자, 정혜영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듬·소통센터장 등이 목소리를 낸다. 이날 다루는 주제는 문화예술인 권익증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문화예술계 내 성차별 관행과 위력의 작동이 성폭력의 발생과 은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